

나주시, 지역 현안 추진 ‘젠걸음’

손금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예산 확보 방안 논의 혁신도시 생활 SOC사업·한전공대 설립 지원 등 요청

나주시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7일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나주·화순 지역구 손금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지역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당면한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으로는 가족센터 건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저장 기술개발 사업, 남평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산 시민의 숲 조성사업, 혁신도

시 정주여건 개선 생활 SOC 사업, 친환경 농산물 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 등을 제안,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줄 것을 손 의원에게 요청했다. 또한 한전공과대학(Kepco tech) 설립 지원 방안을 비롯해 혁신도시 시즌2 대응,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스마트 팜 구축, 나주 배 산업 활성화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혁신도시 이전 완료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한전공대 유치 확정을 통해 나주시

에너지수도 건설 비전이 더욱 현실로 다가왔다”며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더 발전된 나주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의원은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한 논리 개발과 법리 근거에 충실해 중앙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영수기자



영암소방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영암소방서(서장 박주익) 삼호119안전센터는 최근 시종중학교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학습을 위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사실〉** 이번 체험교실은 ▲소방 관련 진로 및 소방서 업무 안내 ▲전문 전문직업인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보람과 가치 ▲소방 공무원이 하는 일 체험 등을 실시했다. 체험 프로그램 중 화재진압 프로그램에선 화재진압 장비 소개, 화재진압 장비 착용, 방수 및 구조 훈련 체험 등 직접적으로 실습함으로써 소방관이란 직업을 상세히 알려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뤄졌다. /영암=이봉영기자

어린이날 경비함정 공개 호응 목포해경, 승선 체험 등 다채

목포해양경찰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해양경찰 경비함정 공개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목포 죽교동에 위치한 해경 전용부두에서 하이브리드 경비함정인 3015함에서 공개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인근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천여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조타실 등 경비함정을 공개해 해양경찰 주요 장비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진압 장구류 등을 소개하고 해양 환경 사진 전시회와 해양경찰 어린이 정복을 입고 기념 촬영하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특히 평소 그림이나 영상으로만 보았던 해양경찰 고속단정에 승선해 바다를 달려보는 체험행사는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예니를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보고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도 배우며 해양 안전의식을 ‘속속’ 키우는 특별한 어린이날을 보냈다. /목포=강효종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어린이날을 맞아 해양경찰 경비함정 공개 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해양경찰 고속단정에 승선하고 있는 모습.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핵연료 잠재적 위험, 자원시설세 과세해야”

영광군 등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단체 공동 건의문

영광군 등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최근 영광군청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준성 영광군수 등을 비롯한 5개 기초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 서명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오규석 기장군수, 이선호 울주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 소재 광역·기초 단체장이 동참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원자력 발전 등으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 보관해야 함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소 내에 임시 저장돼 있어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원전 소재 자치단체 주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 자원 시설세는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이 원전 소재 자치단체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는 방사성 폐기물 원전 소재 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따른 상당한 보상 차원으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앞으로 원전 소재 1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방사성 폐기물 과세 실현을 위해 서로 뜻을 함께해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영광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성장교육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국형진)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5회 부모교육사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부모성장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사람의 힘’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기술을 습득해 가족문제를 예방,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태도 및 행동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총 5회 진행됐다. 교육 참가자는 “부모 교육을 참여하게 돼 뜻 깊었고 앞으로 아이들의 진로와 정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며 “더 많은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형진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부모는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래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는 새로운 교육관, 인제 상을 세우기 위한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완도 新품종 ‘조명1호’ 모내기 시작

4개 단지 110ha 조성 600t 출하

완도군 신품종 ‘조명1호’ 모내기가 시작됐다.

완도군은 7일 “최근 노화음 포진리를 시작으로 신품종 ‘조명1호’를 재배하기 위해 본격적인 모내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이앙하게 되는 신품종 ‘조명1호’는 완도군에서 명품 햅쌀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조생종 신품종으로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했으며 밥맛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품종이다.

완도군에서는 올해 명품 햅쌀단지 장

려 품종으로 ‘조명1호’ 단일 품종을 선정하고 지난해 단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4개 단지 110ha를 조성해 8월 중순 수확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 9월 13일 이른 추석에 맞춰 600t을 출하할 계획이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완도군은 전국에서 가장 햅쌀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따뜻한 난지성 기후,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 등 완도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퇴비를 활용하는 등 완도군만의 적합한 농법을 활용해 명품 햅쌀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매매 - 1억 4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남구 덕남동 임야, 투자

- 3.3㎡당 25만원,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